



남도국악원에서 선보이는 진도 씻김굿 공연.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재개 5~11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이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상영회'를 재개한다.

29일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미술관에 따르면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상영회'는 그간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더욱 밀도 있는 내용으로 관람객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상영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정웅미술관 2층 명예관람실에서 상영한다. 상영회에서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예술가이면서 드라마틱한 인생유전으로 명성을 떨친 폴 세잔, 장승업, 반 고흐, 데이비드 호크니 등 7명의 대가들의 삶을 영화를 통해 만난다.

오는 31일 첫 번째 시간에 만나게 될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은 현대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화가 폴 세잔의 예술노정 그리고 세잔과 작가 에밀 졸라의 우정에 대한 영화다. 엑스프 로방스로 대표되는 남프랑스의 풍광이 세잔의 회화와 소통·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정웅 미술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11월까지 계속된다. 프로그램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5월부터 8월은 이상훈, 9월부터 11월은 조대영씨가 나눠 강연한다. /이나라 기자

ACC 전시 연계 테마강좌

6~7월 '걷기, 헤매기' 4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고 있는 기획 전시 '걷기, 헤매기'에 담긴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 곁을 찾아가고 있다.

오는 6-7월 ACC 문화교육실에서 '걷기, 헤매기' 전시와 연계한 '2023 ACC 테마강좌'가 모두 4차례 열린다.

프로그램은 '전시읽기' 강연과 '작가와 함께 하는 창작활동'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연은 다음달 3일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의 저자 정지돈 소설가와 함께 한다. '도시 속에서 걷기', '예술 속에서 걷기'를 주제로 도시 속으로 산책을 떠난다. 7월엔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방식을 경험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활동'과 건축가의 눈으로 본 '전시읽기' 강연이 이어진다.

'걷기, 헤매기'는 오는 9월 3일까지 ACC 복합전시3, 4관에서 열리는 전시다. 국내외 작가 13인(팀)이 '걷기'라는 행위의 다양한 해석을 담고 있다.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6월 한 달간 진도서 펼쳐지는 굿판 한마당

남도국악원 국악 상설공연
배뱅이굿·남도성주굿 등
내달 3~24일 매주 토요일

이'를 만나 볼 수 있다.

황해도 서도창극인 '배뱅이'는 짧은 생을 살다 간 문벌 높은 집안의 무남독녀 '배뱅이'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굿판이다. 엉터리 박수무당이 교묘한 수단과 거짓으로 낚풀이를 하고 재물을 얻어 가는 내용으로 여장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성음으로 풀어내는 배뱅이의 이야기기를 관람할 수 있다.

10일 열리는 전라도 세습무가 박영태·이장단 초청공연 '남도성주'는 집안의 평안과 번창을 기리는 의식이다. 무대에 오르는 박영태·이장단은 전라도 세습무를 현재까지 전승하는 유일한 부부세습무이다. 박영태는 굿에서 장구를 비롯한 피리, 대금, 아쟁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한다. 이장단은 원래 무계 출신은 아니지만 박

영태와 결혼하면서 함께 무업을 이어가고 있다.

17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의 정가공연 '메모리아(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만나 볼 수 있다. 공연의 주제인 '메모리아'는 라틴어로 기억, 추억, 지난날을 뜻한다. 기존 무용단 대표 작품인 '대신무', '진쇠춤', 산조춤 '휘울'과 함께 새로운 작품인 '춘앵전무산합설'을 초연하며, 박은하류 '설장구춤'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24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 종합공연으로 6월 상설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은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며 살자는 '단가 벗님네'를 시작으로 기악합주 '천년만세', 무용 '침향무', 판소리 심청가 중 '동냥짓 얻어 먹이는 대목', 피리·대금중주 '길

타령', '별우조타령', '군악'을 준비했다. 또한, 경상도 민요인 '상주아리랑', '왜지나 칭칭나네', '옹헤야', 경상도 농악 중 무용농악에서 '복춤'을 선사한다.

점심 식사 후 국립남도국악원을 방문하면 진악당 로비에서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전시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공연장소를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스텝즈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나라 기자

ACC 민주·인권 캐릭터 공모전 대상 선정

김재효·김수린·서정원·윤은총

유아·어린이·청소년 부문에서 각각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등 총 20편 작품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상금 1,600만 원을 수여했다.

ACC는 지난 3-4월 제출 받은 응모작 512편 가운데 주제 관련성과 작품성 등 평가기준에 따른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확정, 발표했다.

수상작은 채널 ACC와 미디어 월, 누리소통망(SNS) 등 ACC가 운영하는 각종 소통 장구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심사위원회는 총평에서 "올해 공모전 출품작은 바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작품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2023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전"에서 '민주동이, 인권동이, 평화동이(김재효 작)'와 '인절미, 오일미, 알팔미(김수린, 서정원, 윤은총 작)'이 청년·일반부문과 유아·어린이·청소년 부문에서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포용이(유성훈 작)'와 '미지와 인지(윤예훈 작)'에게 돌아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ACC 회의실에서 "2023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ACC는 청년·일반부문과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전 수상자 단체사진.

/ACC 제공

ACC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 미래 세대에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8년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을 시작했다. 첫 해엔 동영상 27편, 2019년 웹툰 20편, 2020년 웹툰 10편, 2021년엔 영상

콘텐츠(UCC) 10편을 수상작으로 각각 뽑았다. 지난해에는 20편의 삽화(일러스트)와 그림 일기 수상작을 달력과 홍보물로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알렸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